

# 중국 당대문학 속의 에로티즘\*

— ‘身體寫作’을 중심으로 —

高點福\*\*

## <목 차>

1. 들어가며
2. ‘身體寫作’과 위반의 에로티즘
3. ‘身體寫作’의 서사전략 — 소비사회 하 자아 찾기의 곤혹
4. 나오며

## 1. 들어가며

20세기 초 중국의 지식인들은 중국 사회와 문학의 근대화를 위해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다. 서구로부터 유입된 다양한 문예사조의 중국화를 통해 근대 문학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으로, 이를 낙후된 중국인의 의식을 깨우는 방편으로 삼았다. 외형적인 관점에서 20세기 초의 문학 현상과 문예단체를 개괄할 경우 리얼리즘, 상징주의, 모더니즘 등의 문예사조가 중국적인 방식으로 변용되었으며, 문학연구회, 창조사, 신월파, 현대파, 신감각파 등의 문예단체가 이를 보급시켰다고 할 수 있다. 문예사조의 중국적 변용과 개별 문예단체의 공통된 목적은 봉건적 전통으로부터 해방된 근대적 개인의 발견과 문학의 근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문예사조의 상이성을 불문하고, 또 개별 문예단체의 문학적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지식인들은 공히 모더니티 기획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32-A00540).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 후 연구원

에 참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대혁명의 종결 이후 전개된 중국의 신시기 문학 역시 일정 정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많은 적든 문화대혁명의 기억을 안고 있는 신시기의 중국문학은 20세기 초의 문학현상처럼 다양한 문학적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를 풍미한 傷痕·反思·尋根류의 문학작품, 王朔의 《노는 것만큼 신나는 것도 없다》·《물위의 연가》, 王小波의 '시대 3부작' 시리즈 《黃金時代》·《白銀時代》·《青銅時代》, 余華와 같은 작가들의 선봉 소설 등은 신시기 중국에 다시 한 번 백가쟁명의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개혁개방이 가져온 지식인의 下海열풍과 지식인의 정체성을 점검하고자 했던 인문정신논쟁 등은 시기는 다르지만 20세기 초 지식인의 자기 고민과 흡사한 면이 많다. 한편 '妓女文學'·'身體寫作'과 같은 비평용어로 불리는 九丹과 衛慧 등은 21세기 중국문학의 경향 가운데 하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모더니티 기획에 참여했던 20세기 초의 문학가들에게 근대적 개인의 정체성 모색이 키워드 가운데 하나였던 것처럼, 신시기 이후 전개된 문학적 경향 역시 문혁이라는 집단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모색이 중요한 부분이었다. 郁達夫의 《沈淪》, 茅盾의 《幻滅》·《動搖》·《追求》, 丁玲의 《소피아 여사의 일기》 등의 작품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당시 지식인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상기한 작품들은 性의 문제를 중심으로 개인의 정체성 찾기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의 작가들에게 性 해방은 중국사회의 근대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었다. 한편 신시기 이후의 작가인 張賢亮과 劉恒, 王小波, 九丹, 衛慧 등의 작품에서도 性은 문혁에 대한 비판 형식이자 개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기제이다. 차이가 있다면 20세기 초 문학 작품에서 性이 중국 사회의 위기와 함께 혁명+연애, 혹은 혁명을 위한 사랑의 일방적 희생으로 경사되었다면, 신시기 이후의 작품에서는 문혁의 상처를 치유하는 수단이 되거나 상품소비시대의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시기 이후의 작품에 좀 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性 모티프가 애정의 차원을 넘는 정치적 상징

이 되거나<sup>1)</sup>, 현실 질서로부터의 탈주이자 스스로를 찾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몰입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sup>2)</sup> 신시기 이후의 문학작품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되고 있는 性의 작품화는 ‘色情文學’·‘性愛描寫’·‘身體寫作’과 같은 비평 용어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性 해방을 통한 개인의 정체성 찾기라는 20세기 초의 실험이 혁명과 국가 담론의 강화로 인해 진정한 근대적 개인 담론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면, 신시기 이후의 性 담론은 매체와 상품시장의 강화로 인해 자율성을 잃고 있는 면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20세기 전반기 중국의 문학현상을 개괄하면 성 해방—자유연애—결혼—가정—근대적 개인으로 이어지는 담론이 혁명과 救亡의 담론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철저한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을 기치로 내걸었던 문화대혁명이 종결되고 시작된 신시기의 문학 역시 性을 모티프로 삼아 개인의 정신적 폐해를 극복하고자 한 경향이 강했다. 다시 말해 신시기 문학작품 가운데 상당수는 개인의 정체성 모색과 상처의 치유 과정을 性과 관련하여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이에 따른 상품소비사회의 진전은 性 담론의 해방적 가치를 상쇄시키면서 점차 상품으로서의 가치만을 중시하는 경향을 만들어냈다.

본고는 ‘身體寫作’이라는 문학적 경향을 통해 신시기 이후 중국문학 속에 내장된 에로티즘의 파괴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0세기 초의 문학에서든, 신시기 이후의 문학에서든 性은 끊임없이 재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현대문학사는 성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sup>3)</sup> 신시기 문학 연구자 역시 性을 무언가와 연계된 부차적인 현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문혁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수단으로서의 性, 시장화의 진전에 따른 개인화의 상징으로서의 性,

1) 이옥연, <소설 속의 문화대혁명>, 《중국현대문학》 제20호(서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1, 290쪽).

2) 노정은, <<상하이 베이비>와 ‘신인류’의 문화적 징후>, 《중국현대문학》 제45호(서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8, 280쪽).

3) 徐仲佳 著, 《性愛問題—1920年代中國小說的現代性闡釋》(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5쪽).

상품소비시대의 상품으로서의 性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性과 개인의 욕망이 갖는 인류학적 의의와 가치에 대한 규명이 활성화되고 있다. 본고는 바타이유의 에로티즘(Erotism)을 연구방법론으로 삼아 身體寫作과 관련된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상품소비시대의 문학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초보적인 조망이 되기도 할 것이다.

## 2. ‘身體寫作’과 위반의 에로티즘

루카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의식의 속성 및 능력과 관련하여 “이들은 더 이상 인격의 유기적 통일체로 결합되지 못하며, 마치 외부세계의 온갖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소유할 수도 있고 내다 팔 수도 있는 사물로 전환되고 만다”<sup>4)</sup>고 설명한다. 루카치의 언급은 오늘날의 문학이 보여주는 퇴행 현상을 설명하는 한편으로, 문학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사고하는 유용한 기제이다. 인간의 관념세계와 개인적 능력마저 시장의 평가에 의해 가치를 부여받는 상황에서 문학을 비롯한 제반 예술 장르가 시장가치로부터 자유롭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의 측면에서 90년대 이후, 중국사회의 시장화 및 소비사회의 진전, 그리고 이에 따른 문학의 상품화 현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身體寫作’과 관련된 중국문단의 현상을 이해하는 유용한 방법론으로서 소비사회의 문화적 현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身體寫作’이 매스컴의 이목을 끌고, 대중들 사이에 비교적 쉽게 수용되는 원인은 무엇보다 그것이 인간의 말초적 감각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육체의 상품화라고도 할 수 있는 ‘身體寫作’의 전략은 개인적 육체와 욕망을 별다른 여과장치 없이 원시 상태, 혹은 원시적 관념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글쓰기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만연한 육체와 욕망에 대한 서사의

4) 게오르그 루카치,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서울: 심철당, 1985).

힘을 반영하기도 한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 전송되는 육체와 욕망에 대한 원초적 자극은 은밀한 육체의 비밀을 만천하에 공개하기 바쁘다. 우리 사회에서도 초콜릿 복근·꿀벅지·말벅지·짐승남·영양교수 등과 같은 각종 육체 관련 용어들이 통용되고 있다. 그와 같은 용어들은 육체의 원시적이고 감각적인 면을 환기시키는 한편으로, 육체가 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처럼 각종 매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소비품으로서의 육체의 시장가치는 원시성과 감각성에 좌우된다. 원시적이지 않은 육체, 감각적이지 않은 육체를 매체에서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자아정체성의 모색과 자기완성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육체에 대한 나르시시즘적 도취는 소비사회의 유효한 투자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육체의 상품화를 통한 이윤의 도모가 저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육체가 자발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타율적 통제에 의해 상품으로 제조된다는 점에서 시장에 의한 육체의 구속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性 담론에 들어있는 비극, 모순, 해방과 회멸의 사고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반역의 정신과 절망의 미학마저 없어졌다.”<sup>5)</sup>

육체와 性은 합리적 소비와 파괴를 통해 개체를 지속시킨다. 건강한 육체로 성장한 개인은 육체와 性의 소모를 통해 사회적 생산과 개인적 삶을 유지한다. 그리고 육체의 소모와 함께 개체로서의 삶을 마무리한다. 육체와 성의 소비를 통해 인간의 사회적·개인적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바타이유는 “인간의 삶은 극단적 소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극단적 소비를 의미하며 그런 점에서, 인간의 생명운동이 갈망하지 않는 것은 없다.”<sup>6)</sup>고 말한다. 이와 같은 바타이유의 언급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 문제인 성이 상품화될 수 있는 조건을 밝혀주기도 한다. 더불어 육체적 욕망이 갖는 파괴적인 면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그에게 “관능의 욕망은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싶은 욕망 또는 적어도 스스로를 남김없이 잃어버리고 싶은 욕망이기”<sup>7)</sup> 때문이다. 그

5) 蔣輝 저, 심남숙 역, 당대문학창작에서의 性에 대한 담론 > (서울: 《중국문학이론》, 2002, 282쪽).

6) 조르주 바타이유, 조한경 옮김, 《에로티즘의 역사》(서울: 민음사, 2010, 117쪽).

러나 인간의 그와 같은 소비는 죽음이라는, 다시 말해 문명의 파괴라는 극히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되고 금기시된다. 바타이유는 '에로티즘'을 통해 그러한 금기와 문명의 관계, 문명에 의한 육체적 소비의 통제를 인류학적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身體寫作'과 관련하여 바타이유의 '에로티즘'이 흥미로운 점은 전자가 감각적 육체를 과감히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이다. 육체의 감각적 소비와 자기 파괴적 활동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에로티즘과 '身體寫作'의 긍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바타이유에게 성은 육체의 적극적인 소비라는 점에서 소비사회를 분석하는 유효한 기제가 된다. 그는 성 욕망과 이의 해소 과정에서 극적으로 구현되는 금기와 금기의 위반 사이에서 인간 문명의 조건을 발견한다. "성은 금기의 제한을 받으며, 사유는 성이 없는 세계 속에서 형성된다. 사유는 비(非) 성적이다. 절대 또는 절대적인 태도와는 대립된 지적 세계는 우리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빈곤하고 종속적인 세계, 유익한 사물의 개별화된 세계, 노동 활동만이 규칙적이고 오직 그것이 지배하는 세계, 각자가 기계화된 질서 속에서 자기 자리만을 지켜야 하는 세계로 만든다."<sup>8)</sup> 그에게 문명세계는 유용성의 규칙이 지배하는 유용한 사물들의 질서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명세계의 질서는 언제나 위반을 기다리고 있다. 그에게는 유용성이 지배하는 문명세계를 위반하려는 개인과 행위만이 가치가 있다. 진정한 존재는 절대성에 이르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sup>9)</sup>

바타이유의 언급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身體寫作'에서도 그와 같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衛蕙의 작품 《상하이 베이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역을 하며 청춘의 꿈을 사르고 있다. 산업사회는 젊은이들의 몸에 군데군데 녹이 슨 얼룩덜룩한 반점을 남겨 놓았다."<sup>10)</sup> 산업사회의 진전은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삶에 모종의 상처를 남긴 채 별다른

7) 조르주 바타이유, 조한경 옮김, 《에로티즘의 역사》(서울: 민음사, 2010, 156쪽).

8) 조르주 바타이유, 조한경 옮김, 《에로티즘의 역사》(서울: 민음사, 2010, 25쪽).

9) 이에 대해서는 조르주 바타이유의 위의 책(173쪽—186쪽)을 참고.

10) 웨이후이, 김희옥 옮김, 《상하이 베이비》(서울: 집영출판사, 2001, 20쪽).

가치관적·경제적 성과 없이 반복적인 삶을 강요한다. 작품의 화자 역시 그러한 일상의 삶에 염증을 느끼고 일탈, 혹은 해방의 방편으로 육체의 소비에 골몰한다. 물론 몇 년간의 불규칙적인 생활은 코코를 만나기 전 티안의 유일한 여자 친구였던 마돈나의 표현처럼 몸을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린다.<sup>11)</sup> 화자가 선택한 불규칙한 삶은 산업사회가 규정한 개인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산업사회의 암묵적 규칙은 노동활동을 통해 유익한 재화를 획득하여 사회적 생산과 개인적 삶을 꾸리는 것이다. 이는 앞서 바타이유가 언급한, 각자가 기계화된 질서 속에서 자기 자리만을 지켜야 하는 세계이다. 작품은 쓰레기장이 되어버릴 정도의 육체의 소모를 통해 그와 같은 산업사회의 금기에 도전한다. 그 결과 작중 화자는 육체와 글쓰기가 일치된 경험을 하게 된다. “내 몸이 풍만할 때 쓴 글은 간결하면서도 야물었고, 상대적으로 좀 야위었을 때 쓴 글은 길고 느려 심해의 수초처럼 자아의 한계를 넘어 우주를 향해 넓고도 높은 무엇을 나타냈다.”<sup>12)</sup> 작품이 ‘身體寫作’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점 역시 이와 같은 언급에서 찾을 수 있다. 육체와 글쓰기의 일체, 일상적 경험과 사고의 결과물이 아닌, 육체적 감각을 통한 글쓰기가 바로 ‘身體寫作’의 서사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身體寫作’의 서사전략이 산업사회의 금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身體寫作’을 육체적 감각을 통한 글쓰기라고 한다면 쓰레기장이 될 정도로 소모된 육체로는 글쓰기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육체의 소모를 통한 금기에의 도전은 개인의 존립 근거를 삭제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바타이유는 에로티즘이 전체적으로 금기의 위반이며, 금기의 위반인 한에서만 인간적인 행위라고 본다.<sup>13)</sup> 에로티즘은 경제적 현실, 그리고 닫힌 현실의 질서를 뒤엎는 동요이다. 금기를 준수하고, 금기에 복종하면, 인간은 더 이상 그것을 의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범하는 순간 인간은 고뇌를 느끼며, 고뇌와 함께 금기가 의식되고, 죄의식도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고뇌와 죄의식

11) 웨이후이, 김희옥 옮김, 《상하이 베이비》(서울: 집영출판사, 2001, 23쪽).

12) 웨이후이, 김희옥 옮김, 《상하이 베이비》(서울: 집영출판사, 2001, 211쪽).

13) 조르쥬 바타이유, 조한경 옮김, 《에로티즘》(서울: 민음사, 2007, 102쪽).

끝에 인간은 위반을 완수하고, 성공시킨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인간의 의식은 그 위반을 즐기기 위해 금기를 지속시킨다는 것이다. 금기를 어기려는 충동과, 금기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고뇌를 동시에 느낄 때 비로소 에로티즘의 내적 체험은 가능한 것이다.<sup>14)</sup> 바타이유는 인간에게는 자신의 삶을 사회적 질서에 구속시킴으로써 지속시키려는 충동과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그러나 현재적 삶의 방식을 부정해야 하는 모순적 충동이 병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전자의 예로 인간의 노동을, 후자의 예로 性을 들고 있다. 인간사회의 이성적이고 아름다운 질서는 노동으로 대변된다. 이와 달리 性은 노동의 세계에 의해 추하고 짐승적인 것으로 낙인찍힌다. 그럼에도 性은 인간의 사물화를 최대한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인간은 性적 충동의 해소를 통해 자신의 사물화를 막고자 한다. 그러나 그러한 충동은 개인을 사회적 죽음으로 이끈다. 이처럼 “에로티즘에는 유혹과 공포, 긍정과 부정의 엇갈림이 있다.”<sup>15)</sup> 인간은 자신 스스로 금기를 만들어 지속시키면서 동시에 위반을 모색한다. 금기 자체가 구속과 쾌락의 동시적 원인인 것이다.

이와 같은 에로티즘의 관점에서 신시기 이후 중국문학의 흐름을 개괄할 수 있다.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이라는 명목으로 10년간 지속되었던 문화대혁명과 거기에 수반되었던 혁명 이데올로기, 개혁개방과 함께 진행된 중국사회의 자본주의화는 남성 중심의 노동과 이성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王小波, 林白, 衛慧, 棉棉, 九丹 등의 작품에 묘사된 성적 충동과 여성적 내레이션 등은 남성 중심의 노동과 이성의 세계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葛紅兵은 90년대 이후 중국사회의 변화를 집단과 이성을 중심으로 한 문화에서 개인과 감성을 중심으로 한 문화로의 변화로 본다. 그는 5.4시기 지식인인 郭沫若, 成仿吾, 朱自清 등의 문학관에서도 자아표현을 주장하는 개인주의적 면모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와 같은 개인과 감성을 중시한 문학관이 1928년 이후 민족해방이라는 공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흐름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는 것이

14) 조르주 바타이유, 조한경 옮김, 《에로티즘》(서울: 민음사, 2007, 41쪽).

15) 조르주 바타이유, 조한경 옮김, 《에로티즘의 역사》(서울: 민음사, 2010, 60쪽).



그의 판단이다.<sup>16)</sup>

이러한 총체적인 시각에서 20세기 중국 문학을 재구하게 되면, 90년대 이후 가속화된 글쓰기의 개인화, 특히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身體寫作’의 적극적인 면을 추출해낼 수 있다. 일단 “90년대 이후 가속화된 개인화된 글쓰기의 특징은 서술자가 윤리적이고 이성적 영혼의 소유자가 아니라 감성적 신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이다.”<sup>17)</sup> 《상하이 베이비》에서 “지나치게 몸을 실험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상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상대를 죽이고 싶은 끔찍한 殺意를 느끼게 되는”<sup>18)</sup> 것은 에로티즘의 파괴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한편 이는 또 “적나라한 육체의 감정을 다름으로써 숭고하고 고상한 정신을 비웃는 방식으로 남성중심의 理性문화를 해체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張愛玲의 문학 과도 상통한다.”<sup>19)</sup> 조금 더 진전시키면 함축적인 性 표현을 통해 20세기 초 젊은이들의 자아의식을 일깨우고자 했던 茅盾의 《飾》三部曲 중 <追求>, 유학생의 변태적인 성 심리를 중국의 위기와 연계시켜 묘사한 郁達夫의 <沈淪> 등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5.4이후 중국사회의 근대화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된 性 해방에 대한 다양한 문학적 시도가 사회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되고, 다시 중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된 과정을 에로티즘을 방법론으로 하여 조망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에로티즘은 인간세계가 확립한 질서를 기계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위반하고자 한다. 에로티즘에는 문명사회가 개인에게 강요한 이성으로도 통제하기 어려운 유혹이 있다. 개인은 유혹이 가져올 공포를 지각하고 있으면서도 충동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금지된 것에 대한 충동과 충동 이후의 공포가 없다면 에로티즘은 불가능하다. 이를 두고 바타이유는 “위반의 감정이 없다면 에로

16) 葛紅兵, <個體性文學與身體形作家—90年代的小說轉向> (《山花》 1997년 제3기, 74쪽) 을 참고.

17) 葛紅兵, <個體性文學與身體形作家—90年代的小說轉向>, 《山花》 1997년 제3기, 76쪽.

18) 박종숙, <몸으로 쓰는 소설과 性>, 《중국현대문학》(서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3, 99쪽).

19) 박종숙, <몸으로 쓰는 소설과 性>, 《중국현대문학》(서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3, 109쪽).

티즘은 포착 불가능하고 잘못 조건 지워진다.”<sup>20)</sup>고 말한다. 위반을 통해 개인은 본원적인 자신과 대면하고, 허울의 탈을 벗게 된다. 신시기 이후의 중국문학은 상당수가 性 충동을 통해 문명세계의 허울을 고발하고 있다. 이 시기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性은 제반 억압기제에 대한 반발이자 그것 자체로 인간의 원시적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물론 적극적인 위반의 기제를 지닌 性 충동을 통해 기존의 질서를 비판하는 한편으로, 개인의 사회적 재생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에로티즘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張賢亮의 《남자의 절반은 여자》에 등장하는 남성 주인공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어쨌든 張賢亮 등의 작품으로부터 衛慧, 棉棉 등의 ‘身體寫作’에 이르기까지 신시기 이후 중국문학은 성적 충동의 심화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러한 충동의 심화는 중국 사회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가령 문혁의 종료 후 출현한 다양한 문학작품 가운데 성을 적극적으로 다룬 작품들은 毛澤東식 혁명과의 고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출현한 ‘身體寫作’은 산업사회에서 소비사회로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위반과 사회변화를 담아내는 수단 가운데 性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性은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 논의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 심지어 “유희의 시대이며 무기력의 시대이고 죄의식마저 자극하지 못하는 소비의 시대인 90년대”<sup>21)</sup>에도 性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분명 性에 대한 본질적 인식의 부족과 그에 따른 집단적 왜곡이 낳은 결과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명세계는 노동을 통해 형성되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사회와 사회 간의 질서를 통해 구축된다. 문명세계는 그런 관계들의 질서를 아름다운 것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강요한다. 문명세계는 온몸에 산업사회의 찌꺼기가 묻은 자를 美의 대상으로 삼을 뿐이다. 자연인의 삶은 한 순간의 호기심을 위한 자극제가 되거나 문명인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소

20) 조르주 바타이유, 조한경 옮김, 《에로티즘의 역사》(서울: 민음사, 2010, 27쪽 각주 4번).

21) 蔣暉 저, 심남숙 역, <당대문학창작에서의 性에 대한 담론>, 《중국문학이론》(서울: 한국중국문학이론학회, 2002, 281쪽).

극적 역할을 할 뿐이다. 다시 말해 문명사회의 사유는 인간의 원시적 면모를 진정으로 끌어안지 못한다. 인간의 욕망이 지닌 추악하고, 비인간적인 면(이 역시 문명사회의 가치판단일 것이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등한시하고,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추악하고, 비인간적인 것으로 치부된 인간의 이면은 문명과의 접촉을 통해 성장을 거듭한다. 등한시하거나, 지속적으로 배척할 수만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문명의 찌꺼기인 것이다. “사유는 그것을 바깥에서, 높은 곳에서, 거만하게 굽어본다. 사유 측에서 볼 때, 그 세계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다룰 때 그렇듯이, 엄밀히 말해, 자신은 게임에 말려들지 않은 채 바라볼 뿐인 대상인 것이다.”<sup>22)</sup>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내고 있는 더럽고, 냄새나는 찌꺼기를 정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영원히 문명세계의 바깥으로 추방하려고만 한다. 자신이 만들어낸 찌꺼기를 추방하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거기에 매혹된다. 그리고는 엄연히 주변에 존속하고 있는 자신의 찌꺼기에서 벗어났다고 승전고를 울린다. 찌꺼기의 생산이 없는 문명의 발전은 불가능한 인간의 꿈일 뿐이다. 이처럼 “인간의 원칙으로서의 에로티즘은, 혹시나 더러운 것을 보게 되거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선뜻 바라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봉인된 편지도 같다. 오늘날 우리가 에로티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문명—자연과 대척점에 있는 문명—에 몸을 담은 채 자연에 마음을 홀리곤 하기 때문이다.”<sup>23)</sup>

그렇게 인간 자신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찌꺼기 취급을 받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은 억압과 배척을 통해 지속적으로 커지고, 사회와 문명을 되비추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身體寫作’의 세계는 그렇게 억압되고 배척된 인간의 욕망을 전면에 내세워 문명과 인간의 사유를 점검한다. 억압을 받아온 여성의 주체적 글쓰기가 그렇고, 은밀하게만 전해지는 육체의 경험을 활자화하는 것이 그렇다. 그러나 ‘身體寫作’의 운명 역시 性を 개성 해방의 방편으로서만 사

22) 조르주 바타이유, 조한경 옮김, 《에로티즘의 역사》(서울: 민음사, 2010, 23쪽).

23) 조르주 바타이유, 조한경 옮김, 《에로티즘의 역사》(서울: 민음사, 2010, 91쪽).

유했던 5.4시기 문학처럼 새로운 사회의 도래에 대한 증거 역할만을 할 가능성이 크다. 몸이 그 어떤 상품보다 매력적인 상품으로 포장되어 팔리는 소비의 시대에 육체에 대한 원시적 감성은 집단적 정욕을 해소하는 방편이 되기 쉽다. 또 사회의 허위적인 도덕적 욕망을 교묘히 감추는 수단으로 포장되기 일쑤다. 그렇게 性을 비롯한 육체와 관련된 충동은 파괴성을 상실하고 시장의 좌판에 걸리는 신세가 되었다. 5.4시기와 신시기에 해방의 아이콘이기도 했던 性은 시장의 핵심 아이콘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身體寫作’의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시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국사회의 일면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존의 글쓰기에 반항하는 방식으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메커니즘의 틀 안에서 상품화의 길을 걷고 있는 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性의 상품화는 21세기 중국의 자본주의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고, 또 중국사회의 일반적인 도덕률·관습까지도 연계하여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조망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시스템 이면, 도덕률이나 관습의 허위적 측면을 ‘身體寫作’을 통해 되짚을 수 있는 것이다.

### 3. ‘身體寫作’의 서사전략 — 소비사회 하 자아 찾기의 곤혹

이와 같은 측면에서 ‘身體寫作’의 적극적인 의의를 긍정할 수 있다면, 이제는 그것의 한계에 대해 논할 시점이다. ‘身體寫作’의 한계를 논하기 위해 본고는 소비사회 개념을 빌려올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중국에서 진행되어온 ‘身體寫作’에 대한 논의를 간략하게 고찰하도록 하자.

“‘身體寫作’과 관련하여 90년대 초에 전개되었던 논쟁은 두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林白의 《一個人的戰爭》이 1994년 《花城》 잡지에 발표되면서 발생했다. 두 번째는 木子美와 竹影青瞳의 인터넷 글쓰기가 야기한 것이었다. 그 기간 동안 衛慧와 棉棉 등 ‘美女作家’들의 등장과 작품심사제도가

야기한 논쟁, 九丹의 ‘妓女寫作’이 야기한 욕설과 趙凝의 ‘胸口寫作’ 등이 논쟁을 일으켰다. 여성 작가들이 야기한 논쟁은 글쓰기 권리와 도덕에 대한 의문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작품의 예술성과 언어적 표현 능력에 대한 질문은 아니었다.”<sup>24)</sup> 이와 같은 현상이 출현하게 된 우선적인 원인은 문학이 정치에 복무해야 했던 시기를 거쳐 점차 개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1988년을 전후하여 성에 대한 대담한 묘사가 강렬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는데, 1988년에 출판된 鐵凝의 《玫瑰門》은 직접적으로 여성의 신체로 회귀하는 방식으로 인물과 작가에 대한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금기에서 벗어났다. 莫言의 소설 역시 신체의 배설물이나 감각 기관의 묘사를 통해 인류에 대한 문명의 금기를 비판했다.<sup>25)</sup>

“朱文은 그의 첫 번째 장편소설 《甚麼是垃圾甚麼是愛》에서 ‘신체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생활의 문제이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朱文의 견해뿐 아니라, 陳染, 林白, 韓東, 李馮 등 1960년대에 태어난 신세대 작가들은 신체를 확장하려 하고, 이데올로기에 반항하는 수단으로 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26)</sup> 그들은 초기 신세대 작가들은 중국문단에서 가장 급진적인 아방가르드이다. 그들은 당대 중국의 글쓰기 체제를 불신할 뿐 아니라, 100여 년의 중국 문학 전통과도 어울리지 못했다. 그들은 집단주의의 도덕적 신념에 반항했을 뿐 아니라, 사회의 물질적·정신적 계층 구조에 대해서도 조소를 퍼부었다.<sup>27)</sup>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체는 점차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으며, 더불어 개인과 사회가 교류하는 중요한 통행증이 되었다.<sup>28)</sup> 신시기 문학의 신체

24) 柯倩婷 著, 《身體、創傷與性別—中國新時期小說的身體書寫》(중국어: 廣東人民出版社, 2009, 257쪽).

25) 이에 대해서는 柯倩婷 著, 《身體、創傷與性別—中國新時期小說的身體書寫》(중국어: 廣東人民出版社, 2009, 52쪽, 43쪽, 67쪽)를 참고함.

26) 葛紅兵, <身體寫作—啓蒙書寫、革命書寫之後: “身體”的當下處境>, 《當代文壇》2005년 제3기, 5쪽.

27) 葛紅兵, <身體寫作—啓蒙書寫、革命書寫之後: “身體”的當下處境>, 《當代文壇》2005년 제3기, 8쪽.

28) 柯倩婷 著, 《身體、創傷與性別—中國新時期小說的身體書寫》(중국어: 廣東人民出版社, 2009, 25쪽).

재현은 특정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해방적 의미를 담고 있기도 했다. 분명 “70後 여성 작가의 소설에 등장하는 젊은 여성들은 남성 신화와 이데올로기 신화를 전복시켜 여성신화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바로 소비시대의 총아로 전락하게 되었다. 남권 전통이나 부권 질서에 대한 반항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은 사라졌으며, 개인화된 신체는 더 이상 정치적 해방이라는 현실적 공간이 아니라, 경제 개방의 효과를 누리는 최종적 귀결점이 되었다.”<sup>29)</sup> 분명 ‘身體寫作’은 90년대 이후 변화된 중국의 문화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여성이 대담하게 자전적인 글쓰기를 진행하게 된 점과 그녀들의 글쓰기가 소비사회의 진전에 따른 상업화에 의해 문화상품으로 포장된 점이다. ‘身體寫作’에는 훔쳐보거나 하는 남성의 동물적 심리가 반영되어 있으며, 더불어 판매를 위한 포장과 사회적 성 심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상품 판매자로서의 강박 관념이 내재되어 있다.

‘身體寫作’에 대한 논의는 주로 新生代 작가군과 일련의 여성 작가의 창작 경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포스트모던 사회의 소비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그들의 창작 경향에 동조하는 평자들은 性이나 욕망 그 자체의 가치를 중시하여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려고 한다. 그들은 性이나 욕망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 양식으로서의 ‘身體寫作’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자들은 新生代 작가들이 설령 性을 금기시하는 사회윤리를 전복시키더라도 지속적으로 性과 욕망에 대한 서사에 침잠한다면, 영혼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들은 사회의 발전과 性의 개방은 죄악과 영혼의 공허함도 가져오지만, 문명의 발전과 사회적 조화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新生代 작가군의 편향을 비판한다. 이처럼 性을 글쓰기의 전면으로 배치시키고 있는 ‘身體寫作’에 대한 논의 역시 사회적 기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身體寫作’의 주요한 의미를 문화 상품을 찾는 독자대중의 훔쳐보기 욕망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평자들이 많다. 그러나 ‘身體寫作’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연구자들 역시 적지 않다. 국내의 한 연구

29) 李虹, <70後女性寫作: 消費時代的性—身體話語>, 《文藝評論》 2005년 4기, 45쪽.

자는 衛蕙나 棉棉, 九丹의 “작품이 90년대 후기 자본주의 소비문화와 가치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2000년 이후 중국에서 그들의 출현은 이미 예고되어 있던 문화적 현상이었다.”<sup>30)</sup>라고 말한다. 이러한 언급은 1992년 이후 대륙에서 일기 시작한 문화연구 붐에 대한 賀照田의 언급에서도 찾을 수 있다. 賀照田은 “1992년 이후 중국대륙에서 만연하기 시작한 소비주의와 대중문화의 급속한 전개,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 이데올로기의 만연은 대륙에서의 문화연구 붐에 충분한 토대로 작용하였다.”<sup>31)</sup>고 말한다. 賀照田을 비롯한 평자들의 언급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 사회에 만연된 소비문화는 ‘身體寫作’을 분석하는 주요한 방법론이다.

戴錦華는 “여가를 즐기고, 상품을 구매하며 소비하는 것이 중국 사회를 움직이고 조직하는 중요한 방식이 되어버렸다. 상품을 구매하는 공간이 사회질서를 분할하고 다시 조직하며 건설하는 공간이 되었다.”<sup>32)</sup>고 말한다. 그녀가 진단하는 것처럼, 중국사회가 소비에 의해 분할되고 규칙지어진다면(비록 대도시에 한정된 면이 강하지만), 소비는 그 어떤 사회구성 요소보다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戴錦華와 유사한 언급을 보드리야르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보드리야르는 현대사회를 소비사회로 명명하고, 소비 개념의 혁신을 통해 현대사회를 분석하는 열쇠를 찾는다. 그는 인간의 욕구를 사물에 대한 욕구로 해석하지 않고 차이에 대한 욕구로 해석하면서 사회적 차이화의 논리란 개념을 제시한다. 사회적 차이화의 논리란 필요에 의한 상품의 구입과 사용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뽐내기 위해 상품을 잉여적으로 소비한다는 말이다. 상품이 잉여적으로 소비되기 위해서는 개인적 만족이 아닌 사회적 만족, 사회적 지위라는 이미지를 상품에 부과해야 한다. 소비자의 소비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제품 자체의 우수성과 현실적 필요가 중요한 게 아니

30) 노정은, <《상하이 베이비》와 ‘신인류’의 문화적 징후>, 《중국현대문학》 제45호(서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8, 272쪽).

31) 허자오티엔 저, 이정훈 옮김, <중국의 ‘포스트사회주의’의 역사 경험과 문학비평관의 변모 양상>(《진보평론》 제18호, 2003년 겨울호, 49쪽).

32) 타이진화 지음, 오경희·차미경·신동순 옮김, 《숨겨진 서사—1990년대 중국대중문화 읽기》(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6, 365쪽).

다. 나와 타자를 구분할 수 있고, 나의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기에 적절한 상품이라면, 가격도 상관없다. 육체 역시 건강을 위해서만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 보여주기에 적합하지 않는 육체는 건강해도 소용이 없다. 육체 역시 잉여적 소비의 대상임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소비를 위해 상품은 끊임없이 소비자의 새로운 충동을 만들어낸다. 이는 기 드보르(Guy Debord)가 명명한 스펙터클의 끊임없는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탈산업사회의 문화산업을 ‘영구적 아편전쟁’이라고 명명한 그는 그것의 특징을 스펙터클의 축적이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스펙터클 사회는 여가와 소비, 서비스와 여흥, 광고와 상업화된 매체문화를 통해 마취성을 확산시킨다.<sup>33)</sup> 광고는 마취성의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광고는 소비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소비 욕망까지 만들어가며 제품의 소비를 조장한다. “광고를 통하여 여성의 육체는 자동차, 맥주, 그리고 세계와 함께 팔린다. 여성의 삶과 사랑은 일일 드라마의 환상으로 팔리고 여성의 공포와 나약함은 초대형 액션 영화를 위해 팔려나간다. 한편 여성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소비하기도 한다. 여성들은 자기 자신이 대상화된 것을 보고 즐기는 관객이 되는 것이다.”<sup>34)</sup> 여성의 육체만이 각종 제품과 함께 판매되고, 여성들만이 자신을 이중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의 관리된 몸 역시 상품으로 판매되며, 남성들 역시 광고 속 남성에게 자신을 동화시키고자 한다. 소비사회는 성행위의 조건이자 자연적 욕구 충족의 조건인 비밀마저도 용납하지 않는다. 가장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워야 할 개인의 자연스런 욕구와 성행위의 조건들까지 상품으로 포장하여 시장의 호기심을 자아내 소비되게 만든다.

소설과 같은 예술작품 역시 광고를 통해 이미지화되어 스펙터클 효과를 강화한다. 영화화된 소설이나 각종 영상장치를 통해 전달되는 예술작품은 더욱 많은 독자를 끌어들이는 효과를 갖고 있다. 본고에서 분석하고 있는 ‘身體寫作’

33) 이에 대해서는 이수안의 글 <소비문화산업의 몸 이미지와 젠더화된 응시>(《한·독 사회과학논총》 2008년 여름, 196쪽)를 참고함.

34) 이수안, <소비문화산업의 몸 이미지와 젠더화된 응시>(《한·독 사회과학논총》 2008년 여름, 201쪽).



역시 분명 그러한 면이 강하다. ‘身體寫作’이 이전의 글쓰기 양상과는 다른, 여성 주체의 개인적 서사임에는 분명하지만, 소비사회는 ‘身體寫作’을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둔갑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身體寫作’은 주로 제도적 가치로부터의 일탈, 일상의 사소한 것에 대한 집착, 육체에 대한 탐닉 등을 통해 기존의 글쓰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제도적 가치로부터의 일탈은 현대인의 구속감을 해방시켜줄 좋은 예술적 장치로 포장될 수도 있다. 일상의 사소한 것에 대한 집착 역시 개인의 소유욕을 증폭시킴으로써 소비사회의 광고 효과에 기여할 수도 있다. 육체에 대한 비밀스런 탐닉은 개인의 욕구 불만을 해소하는 유용한 상품이 된 지 오래다. 단지 소설이라는 예술적 장치를 통해 육체에 대한 탐닉이 전달됨으로써 개인의 도덕적 수치심을 상쇄시키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身體寫作’의 글쓰기 전략마저 소비사회의 스펙터클 가운데 하나로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身體寫作’은 개인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욕망을 해소하는 유용한 문화상품으로 판매된다.

“‘身體寫作’은 도시의 비정함을 육체에 비유하여 알림으로써 도시민의 비애를 전하기도 한다. 도시인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거대 도시 앞에 선 현대인의 무기력을 전달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모는 문명비판적인 감각을 전하기도 하기 때문에 도시인은 작품(혹은 문화상품)을 통해 자위의 쾌감을 맛볼 수도 있다.”<sup>35)</sup> 그러나 육체를 상품성이 큰 자산으로 기술하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새로운 기호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身體寫作’의 육체는 소비의 대상이자 이윤 창출을 위한 자본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얻게 된다. 육체를 문화상품으로 포장한 적절한 예가 ‘身體寫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身體寫作’은 “문화산업의 생산물은 여가 시간에조차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노린다. 개개의 문화생산물은 모든 사람들을 일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휴식 시간에도 잡아놓는 거대한 경제 메커니즘의 일환이다.”<sup>36)</sup>라는 호르크 하이머와 아도르노의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이와

35) 즐고, <소비사회의 서사전략—身體寫作과 ‘산자이(山寨)’의 경우>, 《중국학논총》 제 28집(서울: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2010, 214쪽).

36) 호르크 하이머, 아도르노, 김유동 옮김, 《계몽의 변증법》(서울: 문학과지성사, 2001,

같은 과정을 통해 문화산업은 사람들을 문화산업의 소비 코드에 부합하는 인간으로 재탄생시킨다. “모든 것의 가치가 상품화되어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소비시대, 심지어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신적 가치까지도 이를 계량하여 수치화하는 소비시대”<sup>37)</sup>는 예술 작품마저도 경제적 가치를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상품의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뿐 아니라, 비도덕적이고 비밀스럽게 행해지는 소비마저 소비의 장 가운데 펼쳐놓음으로써 소비사회는 모든 것을 소비의 가치를 통해 재편한다.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골몰하는 개인의 경쟁은 소비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소비과정은 기회를 균등히 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또는 지위를 둘러싼) 경쟁을 완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형태의 경쟁을 격화시킨다. 소비하는 것에 의해 우리들은 마침내 경쟁상태가 보편화되고 전체주의화된 사회에 살게 되었다.”<sup>38)</sup> ‘身體寫作’ 역시 새로운 글쓰기 양상이라는 명목으로 글쓰기의 재편을 도모하는 면이 있다. 재편 과정은 문학, 혹은 예술의 가치를 시장에서의 수용 여부로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술작품의 가치평가 기준이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것에서 물질적이고 상품적인 것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身體寫作’의 핵심적 묘사 대상인 육체, 특히 여성의 육체는 소비사회의 전략에 의해 계획되고 만들어진 면이 강하다. 소비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육체가 구성됨으로써 육체는 본연의 역할을 잇는다. 육체의 또 다른 측면인 소비를 통한 파멸은 소비사회의 전략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身體寫作’이 중국문단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독자에게 수용될 수 있는 원인 역시 육체의 종극적인 파멸이 제거된 언어이기 때문이다. ‘身體寫作’은 그 자신이 벗어나고자 했던 계몽서사와 혁명서사가 그랬던 것처럼, 육체의 해방이라는 구호를 통해 소비사회의 소비 메커니즘과 연계하여 발언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192-193쪽).

37) 김종희, <대중소비사회와 문학의 운명>, 《비평문학》 제16호, 2002년 12월, 36쪽.

38) 장 보드리야르 지음, 이상률 옮김, 《소비의 사회 — 그 신화와 구조》(서울: 문예출판사, 1996, 283쪽).

《상하이 베이비》의 작품 속 화자는 상하이로 향락을 추구하고 인생의 재미를 아는 도시로 표현하면서, 신세대들은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쾌락의 거품 속에서 자라났으며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sup>39)</sup> 이러한 작품 속 언급을 중국 전체로 확장하는 건 무리겠지만, 하나의 징후로서 읽는 건 가능할 것이다. 비록 소규모이지만 중국사회가 향락을 구가할 수 있는 세대를 갖게 되었다는 점은 분명 사회적 전환의 시점에 처해 있음을 암시한다. 더불어 점차 확산되고 있는 향락과 이를 즐기며 자란 세대의 등장은 분명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사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身體寫作’에 대한 징후적 독법이 요구된다. ‘身體寫作’은 신체의 물질성을 가중시키는 한편으로, 소비사회를 이해하는 코드 가운데 하나로 신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나오며

긍정적인 면에서 ‘身體寫作’은 소비사회의 진전에 따른 글쓰기의 새로운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으로는 작품을 통해 소비사회의 성적 환상을 부풀리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身體寫作’에 대한 가치 판단은 때 이른 면이 있겠지만, 그것이 중국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임에는 틀림 없다. 상업주의가 만들어낸 성적 환상, 즉 육체에 대한 감각적 묘사를 통해 독자를 끌어들이는 글쓰기가 ‘身體寫作’의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성애의 노출은 현실의 허구와 위선을 가장 투명하게 폭로하는 방식”<sup>40)</sup>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身體寫作’은 소비사회의 문화적 논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자, 빈곤한 개인에 대한 성찰일 수도 있다. ‘身體寫作’은 중국사회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으로, ‘70後’ 작가들의 존재론적 단층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 성적 혼란

39) 웨이후이 지음, 김희옥 옮김, 《상하이 베이비》(서울: 집영출판사, 2001, 41쪽)을 참고.

40) 노정은, 위의 글, 283쪽.

과 성 도덕의 상실 등은 이전 세대의 금욕주의적 성 도덕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으며, 가치판단의 중심에 선 소비사회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쨌든 ‘身體寫作’에 대한 연구는 현재 중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거기에 투영된 중국인의 문화적·도덕적 심리를 이해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이다.

‘身體寫作’의 글쓰기 전략에 대한 가치판단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身體寫作’이 일상의 영역뿐 아니라, 예술과 학문의 영역에서도 상당 기간 동안 금기시되었던 성과 육체를 통해 발언권을 획득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육체와 성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점은 분명 ‘身體寫作’의 결과물이지만, 이 과정은 육체와 성의 피폐화, 혹은 空洞化와 함께 이루어졌다. 문화의 俗流化가 이를 말해준다. 문화의 속류화와 연계시키는 일부 평자들의 언급처럼, ‘身體寫作’의 글쓰기 전략은 대중 영합적인 면이 강하다. 대중 영합적인 ‘身體寫作’의 글쓰기 전략은 개인을 한 순간의 충동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이는 육체와 성이 지닌 본연의 가치에 대한 사고를 등한시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고상한 것으로 간주되는 예술을 통해 한 순간의 쾌락만을 추구하게 만든다. 이렇게 순간적 충동에 함몰된 개인은 재빠르게 스쳐가는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사유할 능력을 상실한다. 사유의 상실은 육체와 성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관념세계의 빈곤을 낳는다. ‘身體寫作’에 대해 우호적인 견해를 보이지 않는 평자들의 언급은 대부분 이러한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身體寫作’에 얽혀 있는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궁극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 역시 그와 같은 면을 규명하고자 했지만, ‘身體寫作’이 현재진행형이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던 징후적 독법으로 ‘身體寫作’을 풀어낼 때, 문학현상으로서의 ‘身體寫作’뿐 아니라, 중국사회 변화의 양상으로서의 의의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이 바로 소비사회 하 문학의 존재 방식 및 개인의 존재 양상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될 것이다.

## &lt; 參考文獻 &gt;

- 호르크 하이머, 아도르노, 김유동 옮김, 《계몽의 변증법》,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1.
- 조르주 바타이유, 조한경 옮김, 《에로티즘》, 서울: 민음사, 2007.
- 徐仲佳 著, 《性愛問題—1920年代中國小說的現代性闡釋》,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 柯倩婷 著, 《身體、創傷與性別—中國新時期小說的身體書寫》, 中國: 廣東人民出版社, 2009.
- 李虹, <70後女性寫作: 消費時代的性—身體話語>, 《文藝評論》 2005년 4기.
- 戴錦華, <奇遇與突圍—九十年代女性寫作>, 《文學評論》 1996년 제5기.
- 戴錦華, 陳染: 個人和女性的書寫>, 《當代作家評論》 1996년 제3기.
- 葛紅兵, <個體性文學與身體形作家—90年代的小說轉向>, 《山花》 1997년 제3기.
- 葛紅兵, <身體寫作—啓蒙書寫、革命書寫之後: “身體”의 當下處境>, 《當代文壇》 2005년 제3기.
- 葛紅兵, <中國當代文學中的身體話語>, 《社會科學》 2008년 제3기.
- 秦彬, <性愛與寫作—兼論王小波的性愛敘述與美女作家的身體寫作>, 《貴州教育學院學報》 제25권 제11기(2009년 11월).
- 管興平, <從新感覺派到“身體寫作”: 西方經驗的滲透及回應>, 《湖南大學學報》 제22권 제1기(2008년 1월).
- 임인숙, <몸·자아의 소비 문화적 연결 방식과 불안정성>, 《한국사회》 제18집 1호, 2007.
- 이명선, <근대의 ‘신여성’담론과 신체의 성애화>, 《한국여성학》 제19권 2호, 2003.
- 권이오, <눈(目)과 에로티즘>, 《프랑스어문교육》 제15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3.
- 김중희, <대중소비사회와 문학의 운명>, 《비평문학》 제16호, 2002년 12월.
- 박중숙, <몸으로 쓰는 소설과 性—衛慧의 《上海寶貝》와 九丹의 《烏鴉》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서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3.
- 이육연, <소설 속의 문화대혁명>, 《중국현대문학》제20호, 서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1.
- 노정은, <<상하이 베이비>와 ‘신인류’의 문화적 징후>, 《중국현대문학》 제45호, 서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8.
- 이수안, <소비문화산업의 몸 이미지와 젠더화된 응시>, 《한·독 사회과학논총》

2008년 여름.

이수안, <몸의 물질성과 섹슈얼리티: 이론과 영상 재현의 대응적 독해>, 《젠더와 문화》 제3권 2호, 2010.

성영신, <소비와 광고 속의 신체 이미지: 아름다움의 담론>, 《사회비평》 제17호, 1997.

蔣暉 著, 심남숙 역, <당대문학창작에서의性に 대한 담론>, 《중국문학이론》, 서울: 한국중국문학이론학회, 2002.

고점복, <소비사회의 서사전략-‘身體寫作’과 ‘산자이(山寨)’의 경우>, 《중국학논총》 제28집, 서울: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2010.

### <中文提要>

從20世紀80年代開始, 身體逐漸成爲熱門話題。隨後的90年代更是一個身體覺醒的時代, 現實生活中, 人們開始關照身體的種種感性需要和當下體驗。與此相關, 文學的感性和特點逐漸得到作家們的重視。身體寫作就是用身體來寫作, 寫身體, 寫女性自己的身體, 通過寫身體來訴說女性的幻想和慾望, 是女性對自己被抑壓到無意識領域中的各種經驗的直率表達。可是在消費社會裏面, 身體受到消費社會之各種各樣的制約。比方說, 政治話權, 經濟條件, 社會道德等等。身體在消費社會中的主導身分是通過消費來確定的, 當然, 這只是幻覺而已。人們以爲只有做一個消費者, 我們才能擺脫被別人消費的命運, 而真實的情況卻是我們通過消費他人也消費了自己。

身體爲了實現自己作爲被消費物的角色, 它自己首先必須是一個消費者。在消費社會裏, 一切有形的無形的物都在被消費之中, 一切都因爲被消費而垃圾化。這樣的現象比較容易找到棉棉, 衛慧等等的90年代後出現的女性作家的作品裏面。在她們看來身體只能由快感來書寫, 身體本文只能作爲快感的遺迹而存在。她們的小說對肉慾的沈迷, 不斷地自我消費的深度闡釋的可能。在純粹的快感原則的驅動下她們感受生命的飛翔, 靈感的噴涌, 這就是她們認識世界和進入世界的唯一方式。本文着眼於這種身體寫作的書寫戰略來分析了在消費社會裏的文學和個人之存在方式和危險。

www.kci.go.kr

關鍵詞: 身體寫作、消費社會、性愛、女性、書寫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3. 31.	2012. 5. 3.	2012. 5. 8.	2012. 5. 21.	2012. 5. 31.